

주님 수난 성지 주일을 준비

성 호세마리아께서 쓰셨던
"내적 투쟁" 강론.

2025-3-31.

"야자수 잎은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의를 표하는 상징입니다.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써 세상을 이기시는 순간에 와 계십니다. 십자가의 표징 아래서 그분은 죽음의 왕자인 악마에게 승리하시려는 순간에 와 계신 것입니다." 그리스

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. 그분이 승리자이신 까닭입니다. 싸우셨기 때문에 그분은 승리하신 것입니다. 그분의 싸움은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한 악마와 대결하는 힘겨운 투쟁이었습니다."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
from [https://dev.opusdei.org/ko-kr/
article/junim-sunan-seongji-juileul-junbi/](https://dev.opusdei.org/ko-kr/article/junim-sunan-seongji-juileul-junbi/)
(2025-8-5.)